

A-1. Modified Roll Technique에 의한 치조제 증대술

이영석**, 김병옥*, 한경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광주치과의원*

심한 치주질환이나 발치시 손상, 외상, 치주농양, 치아파절등의 원인에 의해서 치조제가 결손된다. 특히 상악 전치부에서는 돌발적인 외상에 의해서 치아 파절 및 치조골의 손상을 초래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서 심각한 심미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철 수복치료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1980년대 이후에는 치주외과적인 치료 방법이 소개되어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Abrams(1980) 은 결합조직의 유경이식법(roll technique)을 발표하여 기존의 보철적 치료법보다 훨씬 더 심미적이고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 그후 onlay 법(Seibert & Louis : 1996), 상피결합 조직 이식법(Langer & Calagna : 1980), pouch 법(Garber & Rosenberg : 1981), GBR법에 의한 증대술(Nyman : 1990, Buser : 1990, Nevins & Mellomg : 1992, 1994)등이 개발되었다.

치조제의 결손에 대한 분류(Seiber :1983)에 따라 치조제의 결손의 양과 조건이 다르며, 이로인한 치료의 적용 방법도 다르다. Class I의 결손부에서는 회복의 요건이 간단하며, 비교적 성공적이며, Cl. II, Cl. III의 결손에서는 복잡하며, 여러번의 외과적 시도가 요구될 수 있다.

Roll technique은 Cl. I의 결손부에서 가능한 술식이며, Cl. II, Cl. III에서는 결합조직 이식술, 경조직 이식술을 복합해서 이용하거나 다른 술식법을 이용해야 한다. 인접구개조직이 얇고 취약한 경우에서도 이용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치은색조의 변화나, 타 부위의 수술 부위가 필요치 않아 술후 불편감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

Abrams(1980)에 의한 roll tech.은 구개부위의 골막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술 후 불편감과 조직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증례에서 발표할 modified roll technique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였으며 결합조직 이식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차 절개선을 치조정에서 수평절개를 가하고, 구개 측으로 분할층의 판막을 형성한 다음 하부 결체조직과 함께 협측 치은판막을 거상하여서 유경 피판을 형성하고 원하는 만큼 피판을 위치시키며 일차절개선위에서 구개측 분할 피판을 봉합함으로써 primary closure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술 후 불편감과 조직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었다.